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와 인간

미래 문화도시 광주, 어떻게 꿈 꿀 것인가



박기현

3년 뒤에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문화전당이 지어지면 마치 프랑스의 콩피유센터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유럽의 문화도시처럼 광주가 아시아와 외국의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국내 최초의 문화도시로 급부 바뀔 것처럼 꿈을 꾸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이 없으니 지금부터 빨리 아시아문화전당이란 이 거대한 문화복합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우려 섞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8일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문화를 통한 도시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의 미래에 대한 꿈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예로 아시아의 실화와 민담 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은 지 1년 내에 200만 명이 전당을 찾게 하는 이병훈 단장의 꿈이 현실이 되려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일하는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산학 관계자, 비영리 역할을 하는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광주 시민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
미래의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까? 우선,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핵심 인력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충실히 꿈꾸기를 바란다. 외국의 좋은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곳이 아닌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성이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주기 바란다.

하면 다른 곳이 아닌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성이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파리의 콩피유센터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기를 원한다면 뉴욕이 아닌 콩피유센터가 위치한 파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분야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꿈꿀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가지는 미디어를 포함한 테크놀로지 분야이다. 광주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의 산업분야에 전문 분야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있다면 그와 더불어 같이 신경써야 할 분야는 전통문화분야이다. 우리의 멋과 맛, 그리고 길거리 문화도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광주가 지닌 대인시장과 양동시장의 특성화사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문화전문 인력 양성과 그 프로그램 기획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광주에 있는 대학교들 간에 우열을 경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대학 간의 상호 교류와 학교 내에서는 학문들 간의 경계 허물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문들 간의 경계 허물기는 전공 학문이 지닌 전공성을 지닌 채 학문들 간에서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문계, 예술계, 사회계 계열이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분야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홍보와 비판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아직도 광주 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 언론은 광주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 비판을 충실히 해야 광주의 여론이 수렴되어 통일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광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그 관심의 핵심에는 언어교육이 자리한다. 지금까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 그리고 대학과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시민들의 외국어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광주는 아시아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다. 외국어는 문화도시를 가 보던지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는 예로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을 때, 특히 광주문화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은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상품 판매를 위해서 하는 언어를 뛰어 넘어 광주의 멋과 맛을 언어로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관계자들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하고, 그 하나의 예로 광주에 아시아 통역 번역원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욕망으로 '꿈꿀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는 바슐라르는 원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우리 광주 시민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시 구도심 사업 문화전당과 연계돼야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주변 구도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도심 내 문화관련 사업들이 문화전당과의 연계성이 없어 전당과 주변지역이 전혀 다른 공간이 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7대 문화권 가운데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의 아시아문화교류권은 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교류권 내 모든 사업은 문화전당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에 역사문화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여러 프로젝트를 각 실과별로 따로 담당하고 있어 문화전당은 물론 문화중심도시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

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밖에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의 재건축 사업과 문화전당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광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추진단이나 도시 환경·디자인 전문기관 등과의 아무런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례적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패는 문화전당과 주변의 시설·환경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도심 내 각종 사업이 전당을 중심으로 조성·보완돼야 하는 이유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예기다. 구도심 내 각종 사업이 문화전당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단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논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곰팡이 쓴 서산대사 유물, 당국은 뭘 했나

해남 대흥사에 보관된 서산대사의 귀중한 유물 가운데 일부가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슬어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대흥사 내 성보박물관에는 서산대사와 초의선사 유물 등 200여 점의 전시돼 있으나 환경과 습도 등 유물 보존을 위한 기본적 설비조차 안 돼 있고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전시관에 내걸렸던 정조 임금의 내린 '사액제문 표지'는 푸른곰팡이가 슬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문화재청이 최근 보물로 지정된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표지'도 별레가 갈라지고, 정조 임금이 직접 글을 짓고 손수 글을 써 대흥사로 내려 보낸 화상당명(畫像堂銘)도 얼룩이 지는 등 심하게 훼손된 상태다.

대흥사 측은 열악한 시설에 오랫동안 유물을 전시한 탓이라고 시인했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사찰과 문화재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의 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유물을 전시해 왔으니 배겨낼 도리가 있겠는가.

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없다는 것도 유물 훼손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유물 보존·관리 학예연구사를 두지 않은 자체가 대흥사와 문화재 당국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불감증 내지는 무관심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의 역사와 혼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처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면에서 박물관의 완벽한 시설과 유물 보존·관리는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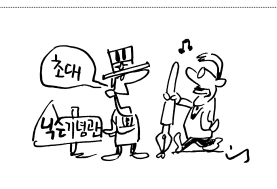
대흥사 측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성보박물관을 다시 신축한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 문화재 당국 역시 학예연구사 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Woodward)는 기자사이에선 전설적인 인물이다. 오늘날까지 탐사보도의 전형으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1972년 워싱턴포스트에서 경찰기차로 뛰던 우드워드는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는 워터게이트발령에서 잡혀온 절도범 5명을 취재하던 중 닉슨 재선위원회의가 건물에 입주한 민주당 본부에 도청장치를 한 단서를 잡고 끈질기게 추적해 세계적 특종을 낚았다. 이 보도로 결국 닉슨은 미국 역사상 임기 중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알려주었던 닉슨 대통령의 신분을 끝까지 숨겨주는 전통을 낚았다. 닉슨을 낚아챈 우드워드가 40년만에 닉슨기념관에 초대됐다고 한다. 닉슨기념관이 확장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로 뛰던 우드워드는 닉슨 대통령을 특별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다. '출입금지 대상 1호'인 우드워드가 초청을 받게 된 것은 기념관 운영권이 닉슨 지지자들로 구성된 닉슨재단에서 미국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국 문헌보관소는 2007년부터 미국 대통령 기념관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엔 닉슨기념관 전시물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드워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대통령 기념관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게이트(Gate)'와 '딥 스로트(Deep Throat)'라는 시사용어를 탄생시킨 주인공의 기록도 갖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게이트는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의혹 사건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화됐고, 딥 스로트는 내부고발자라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당시 닉슨의 관련성을

이승만 대통령 유족이 4·19 희생자가족들에게 사죄하러다 거절당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목포시가 추진중인 DJ기념관도 답보상태다. 국가가 나서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냉혹하게 평가해 기념사업을 한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

중고칼럼



서달원

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한 마음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제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불행과 슬픔만 있어요." 의사는 그 사람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가 빈병 한 개와 약 두 가지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하나는 먹으면 바로 죽는 독약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입니다."

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속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더 가지고 못가지고야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행복한 삶을 지향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이유는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전한 불행입니다. 소름도 여기

내 마음의 행복비타민

다. 만약 이 빈병에 독약을 넣고 그것을 당신이 마신다면 금방 죽어 버릴 테지요. 반대로 이 빈병에 비타민을 넣고 그것을 당신이 마시면 활기를 느끼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병에 어떤 약을 넣느냐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과 돈 몇 천을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빈병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마음에 자꾸만 비타민 대신 독약을 넣으려고 합니까? 마음이 라는 빈병에 독약과도 같이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을 넣지 말고 비타민처럼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을 넣어보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당신의 삶은 장미빛으로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수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이름을 알고 있는 꽃들도 있지만, '저런 꽃들도 있었나?' 싶은 작은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작은 꽃들은 제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라한 그곳에서 때가 되면 소리없이 자기 꽃들을 피워냅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자라한 그곳에서 비록 이름없고, 소리없이 사는 삶이 어도 내가 피워내야 할 꽃들을 아름답게 피워내야지!'

오늘도 아침 미사 마치자마자 분도 형제님이 자신의 전동차를 몰고 바빠 갑니다. 아마 오늘도 매점에 가는 거 볼 겁니다. 오늘도 매점에서 무엇을 골라 들까요? 나이가 60대 중반이지만 정신 연령은 6~7세 정도 어린아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에게는 '아빠' 여자에게는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항상 웃기만 하는 바보같은(?) 분도 형제님이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것처럼 우겨지상을 하고 다니는 저를 오늘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분도 형제님은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꽃입니다. <소름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구희언

우리 학교 교정에는 어느 학교보다 많은 봄꽃들이 있다. 햇살이 그 꽃잎을 어루만지듯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봄날이다. 그렇게 한 가름에 봄기운을 온몸으로 안아보다가 문득 아픈 사람에게서 동백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말이 떠올랐다. 꽃잎이 지지 않고 꽃송이가 모가지 채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그 동백을 가만 들여다보다가 애잔함이 일었다. 최근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궜던 KAIST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각나서이다.

하나이며, 혼자이다. 혼자는 배려를 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배려를 짓밟고 버려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제일주의의 경쟁과정에서 쉽게 성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간 뒤에는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성(人性)으로부터 타자에 대한 배려(配慮)가 나고, 다양하고 풍성한 사고들이 만나 창의(創意)로 커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승자독식주의라는 경쟁 환경에서 오랫동안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공자+스티브 잡스' 인재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난 그 자살 사건을 보면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모두가 바른 길로 가고자 하고 또 선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과거에 우리 사회는 온전한 인성교육 그 자체였다. 명심보감에 "안으로 현명한 부모와 형제하고 밖으로 스승과 벗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다. 그만큼 인성교육의 뿌리를 가정에 두고 사회로 확장시켰다는 말이다.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깨나쁜 교육'이 중요한 패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문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도덕과 정의에 대해 목말라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교육현장에서는 도덕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사건은 앞으로 교육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에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메이시(David Macey)는 "가장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다"라고 했다. '인수의 탐'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삶에 대해 진지한 탐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지식사회를 맨 앞에서 이끌며 숨 가쁘게 달려왔고 더 나은 교육을 밀기름 삼아 더 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과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닌 경쟁은 '배려'라는 중요한 미덕을 집어삼켜 버렸고 현실에서의 인성교육은 구호에만 그쳤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최고의 위치에 있을 KAIST의 젊은 인재들이지만 경쟁구조에서는 낙오자에 불과했다. 그들의 자괴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집어넣는 교육'과 '성과 제일주의 교육'의 한계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최고를 의미하는 한자 제일(第一)은 <광주석산고 교장>

우리는 그동안 정보지식사회를 맨 앞에서 이끌며 숨 가쁘게 달려왔고 더 나은 교육을 밀기름 삼아 더 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과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닌 경쟁은 '배려'라는 중요한 미덕을 집어삼켜 버렸고 현실에서의 인성교육은 구호에만 그쳤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최고의 위치에 있을 KAIST의 젊은 인재들이지만 경쟁구조에서는 낙오자에 불과했다. 그들의 자괴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집어넣는 교육'과 '성과 제일주의 교육'의 한계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최고를 의미하는 한자 제일(第一)은 <광주석산고 교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 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